"AI 윤리, 기업 자율규제로… 기술 집중할 수 있게 지원"

인터뷰 | 전 창 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AI 윤리 문제 안전에 엄청난 파급력
후손들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윤리 지침 구체적·실질적으로 구성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가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희대 광운대 교수, 황준호 공간그룹 이사, 한정택 동국대 교수, 이청호 협회장(세종대 교수), 전창배 이사장(아이오냅 대표), 홍철수 JMTEC 대표, 김태성 MBC플러스센터장, 윤성호 변리사, 백종민 7MILES 대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AI)이 흑인, 여성을 차별하고, 경비로봇이 오류로 1살 아이를 공격해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 러시아 등이 킬러로봇인 군사용 자율로봇을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AI 윤리는 안전과 직결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술 발전 초기부터 이 문제를 꼭 고민해야 합니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 이사장은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2016년 '알파고 대국'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이후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그 이면으로 AI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 윤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인터파크·야후코리아·TU미디어 등 IT 기업에서 근무해오다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업 아이오냅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3년 전 이슈로 떠오른 AI 윤리 문제를 접하고 큰 관심을 가져왔다.

"전 세계 학계에서는 이미 'AI Ethics(윤리)' 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주체도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AI 윤리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나가자는 목적으로 이청호 협회장(세종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지난 3월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AI의 이면에 대해 고(故) 스티븐호킹 박사는 "AI 기술이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고,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AI가 5년이나 10년 후 중대한 위험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AI의 문제로 킬러로봇이 인간의 생명권을 경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뢰제거 로봇이나 인명구조 로봇 등 사람을 살리는 로봇은 적극 개발해야 하지만,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는 금지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전투용 드론이 민간인과 전투원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아프간 민간인 30명을 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킬러로봇도 오류 발생 시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 취급해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은 절대로 기계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AI 역작용에 대한 우려로 2017년 AI비영리단체인 퓨처오브라이프가 '아실로마 AI 원칙'을 발표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지선언을 했으며, 최근 유럽연합(EU)·독일·일본·중국등에서도 AI 윤리 지침들을 발표했다.

"저희 협회는 지난 10월 23일 '인공지능 윤리헌장'을 발표했습니다. 협회에서 전 세계 AI 관련 지침들을 묶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에 역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AI 개발자들이 저희 지침만 보더라도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할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기존에 나왔던 AI 윤리지침들이 너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조항이 짧아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협회가 발표한 AI 윤리헌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 지침 중 처음으로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1장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의 어떤 의사결정도 인간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등입니다." 그는 AI의 선한 본성 추구(5조), AI가 인간과 동등한 의사 결정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점(6조), 전쟁 목적의 AI 개발 금지(8조), 비상용 킬스위치 필수 내장(16조), 소비자 정보 보호 및 고지 의무(30조) 등은 전 세계 최초의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 'AI 산업이 국내에서 무르익기도 전에 AI 윤리를 먼저 내놓는 것은 오히려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AI 윤리로 규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 AI 기술이 미국·중국에 비해 많이 뒤져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제가 아닌 기업 자율규제로 가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희 협회는 기업들이 안전과 위험 문제에서 벗어나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협회가 AI 윤리, 안전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중재해주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AI 윤리를 많이 알리고 전파하려 합니다. AI 기술이 초기 약인공지능 단계로 강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 20~3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AI 윤리도 초창기로 인식 공유가 출발점입니다. 저희 협회는 교육 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협회에 현직 교사들이 많이 참여한 만큼, 미래 AI 개발자가 될 초·중·고 학생들부터 AI·기술 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는 교과과정 내 AI 윤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학교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협회 하부 기관으로 AI윤리 교육 전문 기관도 설립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공급사-수요사 매칭… 기업 네트워크 강화에 혼신

AI 관련 협회 어떤 일 하나

AI포럼·콘퍼런스 등 행사 개최
세미나 열고 비즈니스 모델 소개

인공지능(AI) 관련 협회 및 대표 기업들이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매칭 등을 위한 네트워크 자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능정보산업협회·한국인공지능협회 등 AI 대표 협회들이 'AI 공급기업들과 수요기업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강화를 내년 주요 사업 목표로 정하고 AI 포럼, 콘퍼런스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이스트소프트·마인즈랩 등 대표 AI 기업들도 자사의 AI 기술 소개는 물론 AI 스타트업들이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기업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행사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AI 관련 협회들은 AI 기업들이 AI 플랫폼, 챗봇,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AI 산업이 초기단계여서 유스 케이스 발굴을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지난11월 5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9 금융-AI Tech 포럼'을 개최했다. /지능정보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최근 '자동차-AI 테크 포럼', '금융-AI 테크 포럼' 등 행사를 개최해 공급 기업들과 수요 기업들의 만남을 주선해왔다.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2017년 처음 KB금융지주와 '금융-AI 테크포럼'을 진행해 AI 기업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AI 테크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 아웃바운드로 외부에서 실력 있는 업체를 찾겠다며 협회에 의뢰해오고, AI 전문업체들도 유스케이스를 필요로 해 네트워킹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와 진행한 AI 테크 포럼은 KB금융지주 관계자가 AI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3가지 이슈를 소개하고, 5~6개 기업들이 관련 솔루션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진행한 '자동차-AI 테크' 포럼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공유하고, AI 전문기업들이 관련 솔루션을 소개했다.

협회는 또 내년에는 제조-AI 테크 포럼, 의료-AI 테크 포럼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우디의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최근 협회에 가입하는 등 제조업체들이 AI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내년 중점 사업 목표를 AI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내년에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콘퍼런스 행사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관계자는 "최근 AI 기업들의 편람을 만들고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내년에는 제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공급기업을 소개해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3~4일간 콘퍼런스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에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200여개 소속돼 있고, 교육을 통해 수요-공급 간 매개를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 100여명도 양성한 만큼 내년에 매개자로서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마인즈랩은 자사 AI 플랫폼을 소개하고, AI 관련 기업들이 모여 R&D 및 AI 프로젝트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에코마인즈'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27일에는 '인공지능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하루, ecoMINDs Day'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자사 AI 플랫폼 '마음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을 뿐 아니라 AI 스타트업 기업의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도록 했다.

이스트소프트도 지난 11월 6일 개최한 'AI 플러스 2019' 행사를 통해 AI 분야 종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션을 진행하고, 참가업체인 스캐터랩이 AI 일상대화 챗봇 빌더를 소개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도 마련했다. /채윤정 기자